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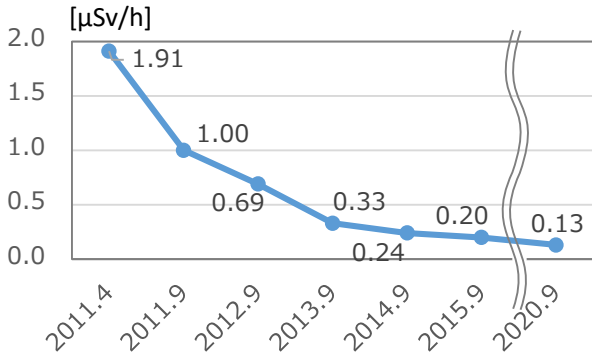
동일본 대지진 복구 현황

피해지역 주민들의 노력과 일본 국내외의 지원에 힘입어 피해 지역의 복구는 재해 이후 1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됨.

- 2011년 3월 11일에 발생. 지진 및 쓰나미 피해와 더불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인해 복합적 피해가 발생. 사망자는 19,747명(지진 피해 관련 사망 포함), 실종자는 2,556명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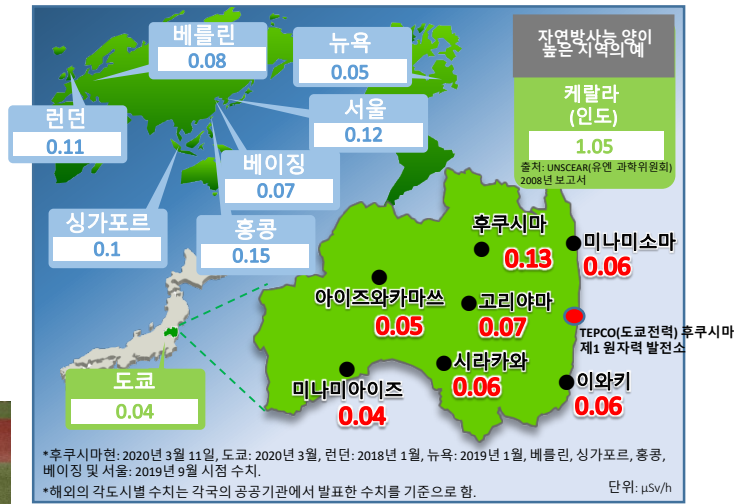
		현황	
피해 인원	피난민 수	470,000명 (재해 발생 당시)	40,000명 (2021년 7월)
	응급 가설 주택 거주 인원 수	316,000명 (2012년 4월 (최대))	1,000명 (2021년 7월)
사회기반시설	재건도로 및 재건지원도로	570km (계획)	541km (95%완료) (2021년 7월)
산업 및 생업	제조품 출하액 등	10조 7,637억 엔 (2010년)	12조 6,392억 엔(117%) (2018년)
	영농 재개가능 농지면적	19,690ha (쓰나미 피해 농지면적)	18,560ha (94%) (2021년 1월)
원자력 재해	피난지시구역의 면적	1,150km ² (후쿠시마현 전체의 12%) (2013년 8월(최대))	337km ² (후쿠시마현 전체의 2.4%) (2020년 3월)

- 후쿠시마시의 공간선량률은 재해 발생 직후에 비해 **대폭 감소**.



출처: '후쿠시마 복구의 발자취(제30.1판, 후쿠시마현)'을 바탕으로 부흥청 작성

- 후쿠시마현 지역의 공간선량률은 해외 주요 도시와 거의 동일한 수준.



- 2020년 도쿄올림픽 경기를 후쿠시마현에서 개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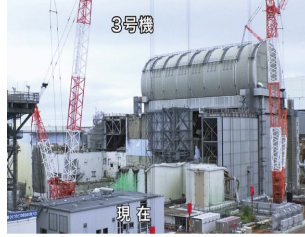


@도쿄 2020년

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현황(폐로를 목표로)



사고 당시(3호기)



현재(3호기)



기시다 총리가 평상복으로 시찰 (2021년 10월)

- 안정 상태를 유지. 방사성 물질 방출량은 대폭 감소.
- 작업자의 경장비화 · 평상복 시찰이 실현됨.
- 국제원자력기구(IAEA)가 폐로 및 ALPS처리수의 안전성 리뷰 등을 실시.
-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정화가 진행되지 않은 '오염수'를 배출하지 않음.

식품의 안전 · 안심 확보

- 일본은 국제적인 식품 규격 가이드라인 수준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검사하고, 기준을 넘은 경우는 일본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음.
- 농수산물은 출하 전에 철저한 모니터링 조사 등을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. 최근 몇 년 사이 기준치를 넘는 것은 거의 없음.
-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해외 각국 · 지역에서 강구된 수입규제는 완화 · 철폐되는 움직임.

규제 조치 내용/국가 · 지역 수			
사고 후 수입규제를 조치	규제조치를 철폐한 국가 · 지역		43
	수입규제를 지속 조치	일부 광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수입 금지	5
		일부 또는 모든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검사증명서 등을 요구	7
55	12		

홍콩, 중국, 대만, 한국, 마카오

후쿠시마현산 농수산물 검사 결과는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
<https://fukumegu.org/ok/contentsV2/>



출처: 농림수산물성 홈페이지

후쿠시마의 매력



봄의 쓰루가 성



과즙이 풍부한 후쿠시마현산 복숭아



후쿠시마 사케(금상 수상 수 일본 1위)



옛 모습을 간직한 거리(오우치주쿠)

이렇게 착실히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
 상기의 정확한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알려주시고
 부디 후쿠시마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